

내일(來日)은 내일(MY JOB) 갖기로

# 지역청년 취업할당 추진 · 시민 맞춤형 취업 알선

**양** 질의 일자리 창출을 시정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원시가 올들어 4,047개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성과는 남원시가 올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 총 113개 사업에서 5,140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한 목표의 78.7%에 이른다. 남원시는 '일자리가 복지'라는 목표로 지난 7월 이환주 시장을 본 부장으로 좋은 일자리대책분부를 구성하고 시민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발굴해나가고 있다.



**▲눈에 띄는 시책... 지역청년 취업할당제**  
남원시는 공약으로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를 관내 기관과 기업에 취업 알선하는 '지역청년 취업할당제'를 통해 현재까지 16개 기관·기업에 99명이 입사하여 고향에서 꿈을 키우고 있다. 처음으로 실시한 방학 중 대학생 일자리사업은 40명에게 행정체험과 경제적 자립심을 키워주는 기회를 제공했다. 청년과 중장년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에게 매월 50만원에서 80만원을, 근로자에게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지원하는 청중장년 취업 지원사업도 반응이 좋다. 24개 업체에서 66명이 혜택을 받았다.

**▲행복을 나누는 사회적기업 육성**  
올해만 예비 사회적기업 4곳과 마을기업 1곳이 탄생하여 18개의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서 200여명이 행복을 나누고 있다. 앞으로 아카데미와 컨설팅을 통해 사회적가치 실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비즈니스 모델정착률로 주민소득 증가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투자유치를 통한 민간기업 일자리 창출**  
한국음료 300억원, 영우냉동식품 180억원, GMF 150억원 등 5개 기업의 증설 투자로 200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기대되고 있다. 남원시는 투자진행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더불어 노안산업단지 및 사매일반산업단지 분양을 위해 전력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근로자 역량강화 교육, 중소기업 집진시설개선, 화장실 개보수 등 일하기 좋은 환경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방학 중 대학생 일자리사업**  
경제적 자립힘 함양 기회 제공  
청·중장년 취업 지원도 호응  
노안산업 투자유치활동 벌여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

애향장려금과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으로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높이고 있다.

**▲맞춤형 취업알선으로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  
지난해 문을 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고용과 복지를 연계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전문상담사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한편,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18명이 교육을 마치고 막바지 취업 길에 오르고 있으며 80여개의 지역 기업체에 대한 정보와 일자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일자리안내책자를 발간하여 배부했다. 이밖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해 7월말 현재 675명이 일자리를 찾았다. 노인들의 소득창출과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력에도 힘을 기울여 140명의 노인 일자리에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1,975명 어르신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미스매치 해소와 구직자와 구인기업이 만족하는 one-stop 고용시장정보 제공을 위해 9월 14일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남원시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남원=유영철 기자



2017 전북방문의 해

2015-17 3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

# 완주와일드푸드축제

2017.9.22(금) - 9.24(일)  
전북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일원

주최 안주군
주관 와일드푸드축제 추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한국관광공사